

광양시, 전통 공시 문화 알린다…할터페스티벌 개최

공시전수교육관, 25일 유림정
전승공동체 활성화 사업 일환
시민 함께하는 무형유산 축제
전통 할터 체험·포럼 등 다채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전통 공시를 널리 알리기 위한 ‘할터페스티벌’이 펼쳐진다.

광양공시전수교육관은 오는 25일 광양 유림정에서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통문화 축제 ‘할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고유의 무형유산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공동체 기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으로, 광양공시전수교육관은 할쏘기 문화의 지속 가능한 전승과 활용 기반 구축

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할쏘기의 예법과 정신을 조망하는 ‘예를 품어 할을 쏘다’, 전통 할터 공간을 재해석하는 ‘할터의 전통문화 터전사’, 전문가들과 할쏘기 문화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전통할쏘기 포럼’ 등이 마련된다.

이 밖에도 △전통 할쏘기 전시 ‘화살로드’ △할쏘기 대회 ‘명궁을 찾아서’ △체험형 부스 ‘궁도장 피크닉’ △어린이 할쏘기 체험 △‘화살로드’ 공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시민들이 직접 대사례와 향사례 등 전통 할쏘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무형유산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축제 사전접수는 네이버폼을 통해 가

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공시전수교육관 홈페이지와 SNS를 참고하거나, 전화(061-763-1154)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호광양공시전수교육관장은 “할쏘기는 단순한 전통 기술을 넘어 우리 민족의 정신이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할쏘기 문화의 가치를 공감하고, 그 전통문화가 일상에서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덕 광양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축제가 시민들이 전통 할쏘기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즐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 무형유산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전통문화가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전승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청정전남 으뜸마을’ 현장컨설팅
구례군, 주민주도 사업 활성화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난 19일 ‘2025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년 차 마을 중분향, 봉동1구, 상위, 달전, 내온 등 5개 마을에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전라남도, 외부 전문가, 구례군 사업 담당자가 직접 마을을 방문해 마을 이장과 주민들을 만나 마을 고유의 특색을 살린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에서 주민들은 평소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며, 마을 여건에 맞는 사업 방향을 논의해 실질적인 해답을 얻기도 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한 이장은 “막연했던 부분이 명확해졌고,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앞으로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목표인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과 컨설팅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주도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전라남도 주관 사업으로, 선정된 마을은 3년간 총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구례=김상현 기자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여수시, 28일까지 실시

전라남도 여수시는 오는 28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상품권 운영대행사(한국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데이터와 불법거래 의심 시민 신고를 수집하고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익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귀농귀촌 행복학교 교육생 모집
고흥군, 30일까지 선착순 접수

전라남도 고흥군은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도시민과 이미 고흥에 전입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제28기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 교육생을 오는 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20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오는 6월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총 3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강의와 선도농가 현장 체험 등 귀농에 필요한 실질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방문 접수, 팩스(061-830-5094), 이메일(pis@korea.kr)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귀농귀촌 행복학교 담당자(061-830-5092)에게 문의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지난 13일 보성군여성단체협의회가 보향다원을 찾아 찻잎 수확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여성단체협의회, 봄 햇차 수확 일손 돕기

전라남도 보성군은 최근 보성군여성단체협의회가 봄 햇차 수확기를 맞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향다원에서 찻잎 수확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차 재배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들은 일손이 절실한 현장에서 정성껏 찻잎을 수확하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보냈다.

김미숙 회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 재배 농가에 작은 힘이라도 보

탔이 돼 뿌듯하다”며 “서로 협력해 어려움을 나누고 행복함을 함께 누리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여성단체협의회는 평소에도 밑반찬 나눔,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지역 밀착형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보성=양중수 기자

장흥군, ‘친환경 유기농쌀’ 미국 수출 본격화

장흥군친환경농업협회, 2차 수출
수출업체 품목별 차등단가 적용

전라남도 장흥군은 20일 용두농협 미국종합처리장에서 미국 수출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쌀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미국 수출길 오른 ‘바라미쌀’은 장흥군친환경농업협회 작목반에서 생산했다.

수출 계약물량은 총 20톤으로, 지난 1월 10톤에 이어 2차로 10톤을 수출해 미국 LA지역 마트에 공급된다.

장흥군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4월 장흥군 농수산식품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참여해 미국 바이어와 1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기농쌀 수출을 늘려가고 있다.

장흥군은 지역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20일 장흥군이 용두농협 미국종합처리장에서 미국 수출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쌀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장흥군 제공

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자, 제조·가공업체, 수출업체에 대해 각 kg당 190원에서 3900원까지 품목별 차등단가를 적용, 수출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수출경쟁력이 높은

유기농쌀 등을 수출 특화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직불금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촉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전환 기자

국보순회전 특별전시 개최
고흥분청문화박물관, 8월10일까지

전라남도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이 ‘가락진 멋과 싱싱한 아름다움, 분청사기’라는 주제로 ‘국보순회전, 모두가 함께하는 180일 여정’ 특별전시

를 20일 개막했다.

이번 국보순회전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하고, 고흥분청문화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국보급 분청사기 가운데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귀중한 작품들을 선보여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자 마련됐다.

전시는 이날부터 오는 8월10일까지 총 80일간 진행되며, 보물 ‘분청사기상감인화 연꽃 문양무늬 병’을 비롯해 ‘이전희 컬렉션’에 포함된 분청사기 등 총 8점의 작품이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이번 국보순회전이 고흥군민을 물론 인근 지역민들에게도 특별한 문화 체험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나라 3대 도자 중 하나로 손꼽히는 분청사기의 멋과 아름다움을 많은 분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